

 제주발전연구원	<h1 style="text-align: center;">보 도 자 료</h1>	담당	기획조정팀
		연락	이영돈 제주대 교수 (총괄) 010-2872-9399 최광식 제주대 교수 (패류) 011-699-9000
<p style="text-align: center;">2009년 12월 1일(화요일)</p>			

지하해수를 이용한 양식수산물 안전성 확보

· 추자연안의 홍합 양식 필요

□ 제주발전연구원 외부공모과제 “제주지역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방안” 연구에서 제언

- 패류양식 분야에서는 추자도 연안의 홍합 (*Mytilus coruscus*) 양식 육성 필요.
 - 추자도 연안에 서식하는 홍합은 크기, 육질 등에서 진주담치보다 월등하며, 수입 홍합과 비교 시 맛이나 모양면에서 뒤지지 않음. 특히 청정 추자지역에서 생산되어 적조 생물로 인한 패독의 염려가 전혀 없는 특징을 지님.
 - 청정 제주해역에서 생산된 홍합이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우수성 및 패독으로 부터의 안정성 등에 대한 연구 및 홍보를 통한 소비 촉진 필요.
 - 아직까지 추자도에서 홍합 양식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나, 홍합양식을 위한 연구개발을 통해 향후 추자도에서 홍합 양식이 이루어질 경우 그 시장은 진주담치와 같은 일반 시장을 대상으로 한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저가형 패류가 아니라 호텔이나 횃집과 같은 목적성 시장의 고가형 패류로 그 가치가 인정 될 것으로 판단 됨.
- 바닷잡이 관광과 연계한 패류 종묘생산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바닷잡이 체험어장은 새로운 관광 테마로 그 가치가 높으나 자원량 감소로 인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제주연안 조간대 패류자원 중 특히 바지락과 총알고둥은 바닷잡이 체험어장에서 가장 많이 포획되는 어종으로 이들 자원량은 포획으로 인하여 그 자원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 임. 이에 따라 이들 두 종의 자원량 회복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존 패류종묘 배양장을 이용하여 첫째, 이때패류 인공종묘생산을 통한 바지락 자원량 회복, 둘째, 소형 복족류 (보말) 인공종묘생산을 통한 자원량 회복 활성화가 필요

○ **제주넙치 양식산업**은 제주도의 생물산업 기반산업으로서 자리 매김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산업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타산업(관광, BT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세계일류 상품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요구됨.

-제주 넙치양식이 세계최고의 생산력 향상을 위해 우수형질의 확립에 의한 우량종묘 생산 및 사양관리, 검증위원회를 통한 안정성과 경제성 평가, 종 보존기술개발을 통한 체계적인 종자산업 육성 전략이 요구됨.

- 제주도 양식산업이 제주 해안 환경 저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연안환경자원(지하해수) 및 배출수를 이용하는 환경 친화적인 녹색양식산업 육성전략 수립.

- 제주도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이미지는 청정, 신선, 안전하다는 이미지가 강한 반면 양식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항생제 등의 부정적 이미지가 강함,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기위해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단계까지 양식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구축이 필요.

○ **폐사어**는 비록 죽은 물고기이지만 매우 훌륭한 어분이 될 수 있음.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어분을 외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점차적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어분을 폐사어로부터 위생적으로 제조될 수 있다면 자원 재활용뿐만 아니라 자원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폐사어를 발효균 및 건조감귤박과 함께 고온건조발효장치에서 발효시켜 제조된 폐사어 발효어분은 육상 유래 단백질원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어분으로서 잔류 세균도 없으며, 기타 유해성 물질의 함량도 기준치 이하만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어분이라고 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인식변화만 개선된다면 매우 훌륭한 어분자원이 될 것으로 사료됨.

○ **결론적으로** 친환경 양식산업에 대한 지방차원의 모델 개발과 국가적 추진사업에 대한 지방기관의 선도 모델구현이 필요.

- 도지사 인증 식품에 대해서도 지방 브랜드 강화 차원에서 각종 기준을 강화 필요.

- 질병발생 저감 방안을 위한 기관구축이 필요함. 작년 12월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는 아직 기본적인 검사기관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수산연구조직의 확대를 통해 가축분야의 동물위생시험소에 준하는 수산방역기구를 신설하여 어류질병 방역을 통한 고품질 안정생산체계를 강화 필요.
- 기후온난화 대응 및 접근을 기후 경제학적인 차원에서 세부적 중장기 계획 필요.
- 정부정책지원이 활성화 되는 참치, 토속어종에 대한 기술에 대한 전반적으로 개발이 필요함.
- 제주의 양식산업은 지역경제에 축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예산 지원 강화 필요.
- 지방정부 차원의 특화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R&D, 브랜드 창출 및 마케팅, 가공 유통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젊은이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시책 발굴 필요.